每日新聞

2006년 08월 29일 001면

또 과잉체벌 고3 병원치료·집단식중독·수업료 횡령 교사 입건…

대구교육 '비틀'

사건 터지면 '땜질식' 재발방지 약속만

'교육, 왜 이러나?'

성적 조작의혹, 과잉체벌 등으로 홍역을 치른 대구지역 교육계에 또다시 학교 집단식중독, 교사 수업료 횡령 등 악재가 잇따라 겹치면서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최근 두 달 사이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연이어 유사한 사건이 터짐에 따라 눈가림식 대책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됐던 과잉체벌이 또다시 발생했다. 대구 중구의 한 고교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쯤 이 학교 3학년 담임교사 A(42)씨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고3 학생 최모 군의 목 뒷부분을 30여 대 때렸다는 것. 최 군은 전치 3주에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최군이 평소 지각을 많이 해 순간적으로 A교사가 감정 조절을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A교사가 자주 매를 드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학교 측은 해당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시 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지각생에게 200대의 과잉체벌을 한 고교 교사가 중징계를 받은 지 채 2주일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 지난 달 성적 조작의혹 때처럼 대대적인 현장감독을 통한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아무소용이 없었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건도 재발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성군 한 고교에서 지난 26일쯤 학생 61명이 집단설사를 하는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이 중 2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 25일 오후 학생들에게 제공된 학교 급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달서구 한 여고에서도 29명의 학생이 설사를 하는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대구시와 달서구보건소 등이 29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집단 식중독 사건 역시 지난 6월 중순 '급식대란'이 일어난 후 불과 두 달 만에 발생했다. 당시 시 교육청은 대구시내 418개 초·중·고교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까지 실시했지만 이번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여기에다 교사 횡령사건까지 불거져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학부모들에게 심화학습비 명목으로 받은 수업료 일부를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대구 모 고교 박모(49) 교사를 28일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 3월 대구 모 여고에 재직하면서 특별보충수업 및 논술대비반 희망자 80명으로부터 수업비 명목으로 받은 4천만 원 중 2천 6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사는 당시 학부모회에서 매월 100만 원씩 돈을 받은 뒤 이 가운데 895만 원가량을 동료교사들과의 회식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이상철 정책실장은 "최근 일련의 사건은 개개 학교·교사의 문제가 아니다."며 "구태의연한 혁신이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선 참교육 학부모회 대구지부장은 "연이어 터지니까 할 말이 없다."며 "교육청·학교의 안이한 사고방식이 유사한 사건을 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고·정욱진·임상준기자